“사경으로 마음안정 추구”…日 사경 ‘인기’

60년간 880만명 사경 참여
스트레스·우울증 해소 방편
현대어 경전 등 문턱 낮춰

박영빈 객원기자


야쿠시지 사경도량에서 제공하는 반야심경 사경지. 사진출처=도요게이자이 온라인

세계 문화유산인 일본 나라의 야쿠시지(藥師寺)는 일본 제일의 ‘사경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9월 30일 일본의 ‘도요게이자이신문(東洋経済日報)’은 온라인을 통해 조용히 인기몰이 중인 ‘반야심경 사경’의 배경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야쿠시지가 사경도량으로 떠오른 것은 1968년부터다. 당시 사찰의 방장 다카다 코인 스님은 16세기 중반 소실된 금당 재건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경을 권선했다. 이를 위해 1971년 야쿠시지에서 100명이 한 번에 동시 사경을 할 수 있는 사경도량을 개원했다. 3년 뒤에는 야쿠시지 도쿄 별원에도 사경도량을 건립했다. 이후 야쿠시지는 사경불사로 금당은 물론 소실된 도량들과 서탑의 재건에 성공했다.

야쿠시지 측은 “고대에 사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포교법이었다”며 “나라시대부터 관(官) 주도로 사경도량이 설치됐고 사경 전문 장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등이 이뤄졌던 코로나19 시기, 사경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를 위한 안정법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 전국에 반야심경 사경이 전파된 데 야쿠시지의 사경 권선이 역할했음이 알려지자 오로지 사경을 위해 야쿠시지를 참배하는 사람까지 증가했다.

사경도량이 문을 열고 약 60년 동안 모인 사경지는 약 880만 장. 즉 880만여 명이 사경했다는 뜻이다. 지난 2022년 6월 야쿠시지 도쿄 별원을 무대로 한 NHK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야쿠시지의 사경도량은 재주목 받았다. 야쿠시지의 집사장 오타니 테츠조 스님은 “방송 후 3개월 동안 약 1만 명이 방문해 사경했다”고 전했다.

테츠조 스님은 야쿠시지가 사경도량으로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며 “현대 일본에서 사찰은 장례 주관과 묘지 관리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중세 이후의 전통으로 야쿠시지처럼 고대에 개산한 사찰은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츠조 스님은 “현대인은 돈과 물건의 취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방법을 잊었다”면서 사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로 “지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테츠조 스님은 “참가자에게 사경하는 이유를 물으면, ‘불경을 쓰면서 마음이 깨끗해져 마음이 쉰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분이 많다”며 “사경을 통해 마음 속 ‘무언가’를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반야심경은 겨우 270문자뿐인 짧은 경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 야쿠시지 사경도량에는 일반 종이나 붓펜이 아닌 일본 전통 화지(和紙)에 참가자가 직접 먹을 갈아 사경하게끔 마련돼 있다. 또한 현대어로 번역한 반야심경이나 짧은 게송의 사경 등도 준비해 사경의 문턱을 낮췄다.

日 사찰, 문화재 방화 대비 훈련용 불상 기증

미완성 상태 불상 7구 기증
사찰 화재 대비 훈련에 사용


나라현 광역소방조합에 훈련용 목불을 기증하는 에이교 스님(우측). 사진출처=나라신문

목조 건축과 문화재가 많은 일본은 화재 대비 훈련이 철저하다. 이는 1949년 1월, 호류지 금당이 화재로 전소한 것을 계기로 매년 1월을 문화재 방화의 달로 지정, 정기적으로 목조 문화재 방화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화훈련을 위해 일본의 한 사찰이 훈련용 불상을 기증했다. 10월 1일 일본의 ‘나라신문(奈良新聞)’은 나라현 소방조합에 기증된 불상들에 대해 보도했다.

묘호인(妙法院) 주지 고죠 에이교 스님은 지난 9월 30일 나라현 광역 소방조합 본부에서 진행된 불상 증정식에서 아미타여래, 사천왕, 부동명왕좌상 등 미완성 상태의 불상 7구를 소방조합에 기증했다. 불상들은 선대 주지스님이 취미로 조각하던 불상들 중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의 일부다.

오카모토 스히로 소방조합 예방부장은 “지금까지 사찰 화재에 대비해 문화재를 운반,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찰의 불상은 예경의 대상이기에 함부로 이용할 수 없어 지금까지 무게를 맞춘 골판지 상자로 훈련해왔다”고 전했다.

에이교 스님은 이 사실을 알고 예불 때 사용할 수 없는 미완성 불상을 소방조합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불상이 예경의 대상이라는 예민한 부분을 이해하고 훈련에 임해 온 소방조합에 감사하다”면서 “그래도 훈련에서 실제 불상을 사용해 봐야 문화재의 귀중함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증된 불상들은 높이 약 1미터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다. 묘호인 측은 현재 사찰에 미완성 불상이 100여 구 가량 남아있다고 밝혔다. 에이교 스님은 “미완성 불상들이 소방조합에 도움이 된다면 조각을 남긴 선대 주지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창고에 계시던 부처님들이 오늘부터는 공무원으로 활약하신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방조합은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기증된 불상들을 향후 훈련에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화재 상황 속 훼손 없이 문화재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도 전했다. 기증된 불상들은 매년 문화재 방화의 달 정기훈련 외에도 나라현 내 각지 문화재 방화훈련으로 사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 지장림, 최초 ‘불교 동화책’ 발간

지장보살 서원 서사 강조
약속, 헌신, 책임 가치 초점


어린이 불교 동화책 〈지장보살을 만나다〉를 든 애플 소피아 림 작가(좌)와 지장림 시 유 웨이 주지스님(우). 사진출처=마카오 비즈니스

싱가포르 불교사찰 ‘지장림(地藏林, Di Zang Lin Temple)’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교육법을 결합한 어린이 동화책 〈지장보살을 만나다〉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아동 도서 작가 ‘애플 소피아 림(Apple Sophia Lim)’이 불교 교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 제작한 최초의 어린이 불교 동화책이다. 지난 10월 3일 마카오 영어뉴스 ‘마카오 비즈니스(Macau Business)’는 지장림 사원의 어린이 불교 동화책 발간 소식을 전했다.

애플 소피아 림 작가는 “책에서는 약속 실천과 헌신, 책임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서원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며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강조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흥미를 느끼게끔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장보살을 만나다〉는 2인칭 시점의 화자가 지장보살 이야기를 연극처럼 풀어낸다. 또한 ‘지장보살’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와 사찰에서 만든 찬불가를 수록했다. 애플 소피아 림 작가는 “독자를 배려한 기술의 접목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디지털 시대의 간극을 메우며, 오늘날 기술에 정통한 젊은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장림 주지 시 유 웨이(Shi You Wei) 스님은 “이 책은 지장보살과 〈서유기〉의 삼장법사 사이 갈등을 영리하게 다루며 어린이와 부모 모두 공감할 유머를 결합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의 첫 인쇄본은 500부이며 지장림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독송 법사’ 언급 최초 비문 발굴

텔랑가나 주 차다 유적서
경전 보존 및 암송 역할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가 언급된 설판 유물. 사진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텔랑가나 주 차다에서 ‘경전주석서(Attakatha)’의 ‘독송 법사(Atthakatha Bhanakaa)’를 최초로 기록한 비문이 발견됐다. 팔리 불교경전 해설서인 경전주석서는 고대 인도와 스리랑카의 사회, 문화, 종교 역사에 대한 귀중한 이해를 제공한다. 경전 독송 법사는 이러한 불교경전의 다양한 부분을 보존하고 암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10월 4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경전주석서 독송법사에 대한 기록이 담긴 비문 발굴 소식을 전했다. 이 비문은 인도 고고학 조사 부서의 발굴 작업 중 발견됐다.

인도 고고학 조사책임자이자 금석학자 ‘케이 무니랏남 레디(K Muniratnam Reddy)’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비문은 설판으로 프라크리트(고대 인도어)와 브라흐미(범자(梵字) 문자로 쓰여 기원전 2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며 “비문에는 사원 건축가(Navakmmika)의 동생 사다히카라와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 아들과 딸이 사원 건축에 필요한 석재 평판을 보시하고 건설한 사실과 완공된 사원을 승가 복지를 위해 기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설판에 기재된 ‘경전주석서 독송 법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 최고(最古)이자 최초의 기록이다. 레디는 “불교 경전에서 특정 문장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전문스님인 ‘경전 독송 법사’를 언급한 최초의 비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